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인구가 2014년 말 14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올해 9월 말 현재 141만 명으로 줄어 들었다. 최근의 감소 추세라면 내년 말에는 140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시 추계인구는 올해 145만 명이며, 1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0년 이후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광주시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추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재택근무의 증가를 통해 거대도시의 규모가 커져, 그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작년 뉴유턴임직의 국가별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영어권 국가는 5-6일, 유럽권은 4일, 아시아권은 2-3일인 반면, 한국은 1.6일로 34개국 중에서 최하위였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방역과 보수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재택근무가 그리 폭넓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순정원교수(런던대학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

재택근무가 주는 기회, 메가시티

는 조직적이고 재택근무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빨리 전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은 오피스 비용을 아끼고 직원들은 통근비용을 아끼는 재택근무를 미국, 영국, 일본의 기업들이 다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도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늦을 수는 있겠지만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최근 메가시티, 초광역권, 초거대도시권 등에 대한 논의가 많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이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이며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

하지만 '4+3 초광역권'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메가시티를 대략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것으로 놓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균형정책을 버려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새롭게 등장할 초거대 도시권인 메가시티를 담기에는 너무 작다. 과거의 지역규모인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불균형을 측정하고 지역정책을 실시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이 힘들다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광역행정기구(특별지방자치단체)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미 존재하는 광역행정기구들에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의 조성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2013~2015년 마무리됐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전안을 구상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의 기대감과 함께 유지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경합을 살려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향후 수도권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권역은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경쟁력이 약한 광주-전남이 메가시티로 도약하려면 오로지 상생 밖에는 없는데, 현실은 갈등 속에서 각자도생인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생불여사(生不如死)일 것이고, 비어가는 농촌마을에 남겨질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눈앞에 손익보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통큰 마음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길이 열릴 것이다.

수필의 향기



김 향 남
수필가

우리 동네 아파트 상기는 빈 곳이 대부분이다. 입주한 지 일 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마트와 세탁소, 미용실, 커피점만 몇 개 들어와 있을 뿐 나머지 상가는 다 비어 있다. 1300세대나 되는 곳이니 그리 작은 단지도 아니건만 활성화될 기미라고는 전혀 안 보인다. 빌리고자 했던 일도 오히려 접어버리는 분위기다. '네일아트' 입점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내내 유리창에 펠릭스가 있더니 어느 틈엔지 거둬지고 없고, 곧 오픈할 것 같던 '돈가스점'은 웬일인지 공사를 중단한 지 한참 되었다. 동네 입구 '국밥집'은 개업한다는 소식만 벌써 서너 달은 됐지 싶다. 예전 같으면 오래 피아노, 미술, 보습학원 등이 최소 하나씩은 들어섰을 텐데 아직 기미가 없다. 워낙 외진 동네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 동네 상가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리마다 알록달록 크고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거나 언뜻 보면 모두 성업 중인 것 같으나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개점휴업 상태가

빈 가게 앞을 지나며

나 아예 폐업한 곳도 있을뿐더러 유행건물처럼 순제 빈 채로 서 있기도 하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새 임차인을 찾는 현수막은 색조차 바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우리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어버렸다.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세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도, 외식이 필요할 때도, 회삿일을 할 때도, 심지어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생활마저도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했다. 온라인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게 삶의 대부분을 온라인에 의존하며 버텨 왔다.

버티고 나면 관행을 줄 알았으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버티어 오다 아주 슬금슬금 되어버렸는지 쉽게 탄성을 호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소비 형태는 그대로 굳어지다시피 했고 오히려 돌아가기를 꺼리는 형국이 됐다. 가성비 넘치는 온라인과 비대면 세계의 확장은 오프라인 상점들의 매출을 급속히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부득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높은 임대료와 형편없는 수입, 급리 인상, 소비심리 위축도 한사코 생계를 위협하는 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줄줄이 비어 있는 상가를 보자니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봐도 공급 과잉이고 계산 착오지 싶다. 달라진 세상 맛을 해야 할지, 지나친 욕심이었음을 반성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삶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산책길, 그 앞을 지나간다. 그 사이 무슨 새로운 게 생기는지는 알았지는 행여나 하고 살피는데, 문득 한 사람이 걸어간다. 낯익은 듯 아닌 듯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 움직이는 한 존재, 가게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다. 발기자를 타고 가다 장땀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장땀보다 먼저 내 얼굴을 마주했던 것처럼 낯설고 당혹스럽다. 유리문 저편의 내가 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보고 또 본다.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길가의 가로수도 있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햇살도 남살거린다. 이쪽과 저쪽이 서로를 엿보는 수상한 세상이다.

유리문에 바투 몸을 붙여 안쪽을 들여다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리에 어려 있던 풍경도 사라지고 없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 있고 가운데는 텅 비어 있다. 텅 빈 저 속이 적소처럼 적막하다. 유패면 꾀들의 공허한 빈칸. 문득 빈칸이 나에게 묻는다. 나는 비어 있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비어 있습니까?

머칠 전부터 빈칸마다 새 현수막이 걸렸다. '단지 내 독점 특별 분양'이라는 희고 굵은 글씨가 붉은 천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새 마음 새 단장을 하고서 산뜻하게 나서본 것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유리문마다 흥조가 돌고 제법 생각이 느껴진다. 내 빈 속도 자꾸 부풀어 오르는 듯하다.

기 고



김 형 주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최근 광주시에서 교통환경 분야에서 '대·자·보 도시' 건설이라는 미래의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 70-80년대 엄격한 군부정권의 언론 통제가 극심하던 시절에 일종의 벽보신문인 '대자보'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전달의 도구로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단비처럼 각광을 받는 주요 통로였다. 이렇게 한참 있고 지냈던 대자보가 다시 시민생활에 소환되는 것을 보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사뭇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대자보의 도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리고 '보행(걷기)'의 장려를 통해 교통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운동량이 부족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촉진하는 새로운 교통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자연의 극복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한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의 후과로 심각한 환경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기온상승 등 기후의 급변과 자연재해는 인간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때, 이번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 표방과 세부과제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의 제시

광주, '대·자·보 도시'를 실현하려면

는 매우 의미있는 발걸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여건의 조성과 치밀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부문별로 처해있는 현황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하려면 정시성(定時性)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우리시의 지하철은 정시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버스 경우 아직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특정 혼잡 구간에서의 정체, 너무 길게 설정된 일부 운행노선, 골목이 심한 노선 구조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정시성의 제고 방안 수립과 지하철 노선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의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인근 지자체들과의 교통인프라 설치 및 광역교통 협력 체계의 구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시정과 각 구청들의 행정적 지원 및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보행로에는 대부분 자전거길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어느 지점까지만 자전거길이 설치된 후 갑자기 끊기는가 하면, 노반의 침하로 노면의 단차(段差)가 있고, 협소함 보도로 인해 자전거길을 만들 수 없는 곳이 있으며, 심지어 자전거길 중앙에 전신주가 우뚝 세워져 있는 등의 갖가지 장애 요소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서는 불쑥 튀어나오는 차량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쾌적하고 안전성을 구비한 제대로 된 자전거길이 확충되어야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편의를 위해 공용자전거를 더욱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규모 자전거타기 행사의 개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1-2km 정도의 근거리를 승용차 대신 출근 통학하는 사람들에게 교통 마일리지 등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보행활동의 생활화를 장려해야 한다.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과 100-200m의 거리도 잘 걷지 않는 실정이다. 걷기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산뜻한 보행로를 시내의 모든 구간에 걸쳐 제대로 구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친변도로 등 일부 도로에는 3-4차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歩道)는 겨우 폭이 1m 내외로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비좁은 곳이 다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행의 활성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차도의 폭을 약간 축소하더라도, 최소 2m의 보행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걷기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통해 건강증진과 환경보존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무췌록 '대자보의 도시'가 원활하게 실현되어 광주시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친환경 선도도시로 성장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社說

광주고법 '5·18 위자료' 증액 판결 환영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중학생 동호를 비롯해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소설은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시적 산문으로 표현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촉발시켰다는 평가 속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18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5·18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은 5·18 위자료 손해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5·18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했다. 5·18 당시 사망자 위자료 산정액도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 광주지법은 2

억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광주일보는 얼마전 같은 사안인데도 법원마다 다른 5·18 위자료 문제를 보도했다.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5·18 위자료는 형평성은 물론 법원의 신뢰도 차원에서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 상심감을 안길 뿐 아니라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1부가 최근 5·18 위자료를 증액 판결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광주고법은 5·18 관련 위자료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1억6000여만원까지 증액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광주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도 힘든데 손해 위자료까지 달라서야 되겠는가.

국립되고 서비스 저하된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올여름 새롭게 시설을 마련하고 국립 센터로 출범했지만 이용자들은 오히려 지자체가 운영했 때보다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이전한 트라우마 센터의 위치가 예전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를 타는 이용자들이 수차례 걸어타는 등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관직후는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 등 무성의한 관리로 일관했다고 한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도시공사 건물에 세들어 있다가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 인근 근린공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7월1일 신축 개관했다. 이 센터 이용자는 5·18관련자 507명을 비롯해 여순사건·부마항쟁 등 기타 국가폭력 피해자 752명 등 총 1259명에 달한다.

새로운 센터는 치유 및 상담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회의의 대다수가 고령자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기존 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이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85)씨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최근 낙상사고로 수술을 받은 상태인데,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려면 복구 신안동 집에서 출발해 서구 양동과 농성동에서 두 차례나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환승하는 과정에 육교를 건너는 것은 물론 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200여m 골목길과 200여m 산길을 올라야 비로서 센터 건물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 김씨뿐만 아니라 복구 두암동이나 문흥동에 사는 고령의 회원들은 움직이기 자유스럽지 않아 아침에 버스를 탈 경우 두 시간 이상이 걸려 힘들기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곳의 이용자들은 모두 국가 폭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너무나 딱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 이용자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無等鼓

해남은 1980년대 군곡리 패총(사적)이 발굴돼 학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군곡리 패총 9차 발굴을 비롯해 출토 10여 건에 대한 사·발굴과 유적 지표 조사를 진행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전방위적인 문화유산 재조명 사업을 벌이는 게 이채롭다. 올해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도 공모해 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으로 현산면 읍호·일평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역사문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읍호리 일대는 140만㎡에 달하는 규모에 고분만 110기가 운집한 대형 유적이다.

그동안 진행한 발굴에서도 주목할 성과를 냈다. '거칠마 토성'에서는 마한(馬韓) 전통 제사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확인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 魏書 東夷傳) 등에 기록돼 있는 마한의 별읍(別邑)인 소도(蘇塗)를 발굴로 뒷받침한 것이다. 독수리봉 고분군(전남도 문화재 자료)에서는 4세기에 조성된 마한 수장급 무덤을 발굴했다. 군곡리 패총에서는 배와 아궁이 토제품을 발굴했는데, 구조와 형태

로 미루 실체 사용한 물건이 아니라 의례 용품으로 추정된다. 우리 민족 고유의 부뚜막 신앙을 엿보게 하는 유물이다.

해남군은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비하려고 마한 역사복원 TF를 꾸린 데 이어 역사문화기반 TF로 확대해 문화유산 개발과 보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에 광주·전남지역 마한(馬韓)이 포함되자 맞춤형 대응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이동박물관을 열

어 '거칠마 유적 속보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민에게 지역 고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해남군은 내친김에 지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립 해남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품 확보를 위해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미래 산업 육성 등 먹거리에 열중하는 데서와 달리 해남군의 고대사를 활용한 지역 발전전략이 돋보인다. 해남군의 고대사 조명을 위한 여정이 결실을 맺기를 고대한다.

/윤영기 사화·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